

SK, 화상 시스템으로 실시간 경영

Beijing 지사서 현지경영 관리위해 구축 ... 연말까지 타지역 확대

중국 중심의 글로벌화를 표방하고 있는 SK가 실시간 현장 경영을 위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했다.

SK는 최근 중국 현지 경영체제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Beijing 지사와 본사를 연결하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6월7일 발표했다.

SK는 이에 따라 서울 본사와 Beijing, 울산 공장, 대전 기술원에서 4자 다중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특히 베이징 지사에서 화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본사 임직원에게 현지 사업에 대한 프리젠테이션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다른 기업들은 임원들이 주로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지만 SK는 일반 직원들도 예약만 하면 화상회의 시스템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고 설명했다.

SK는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으로 국내외 사업장 및 지사간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통로 구축 및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사전 업무협의를 통해 출장성과를 높이고 경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SK는 연말까지 지방사업장 및 Shanghai 등 다른 해외지사에도 화상회의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6/08>